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수산자원 고갈 어민 소득증대 발벗고 나서

부안군이 수산자원의 남획, 불법어로,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어업인들의 어획량 감소는 물론 출어일 수 포기 등 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위도 수역에 종묘를 방류, 어민 소득증대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난 13일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을 위해 부안군이 위도 수역에 맞춰 16만 1200마리를 방류했고 추후 꽃게 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날 방류행사에 부안군, 부안어업기술센터,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위도면 어촌계원 등이 나서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한마음으로 수산종묘를 방류했다.

특히 부안군은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라는 기초 아래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해역에서 종묘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보호의식을 고취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대표 수산물인 해삼 및 물돔과 친체한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 등 내수면 어종은 하반기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조업 어구 규제, 어린 고기 포획 금지 등 우리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지키고 보호·보존하려는 참여의식이 함께 할 때 종묘방류사업의 효과 거양은 물론 자원은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해경, "당신의 생명 지켜주는 '조난통신' 이렇게 신고하세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선박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제작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조난통신 장비에 대한 중요성과 사용방법 인식 부족으로 1분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음성 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비중이 높음을 고려해, 리플릿을 이용한 조난통신 방법 숙지로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제작 배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에 관련 동영상도 게재하고 해당 장치가 설치된 선박 점검 시 교육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원도심 활성화 생명력 있는 도시 정읍 만들기 방안을 찾아야”

‘도시재생 시민포럼’ 성황... 주민 참여 통한 해법 찾기 등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정읍시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한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이 13일 오후 2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포럼 주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정읍시의 도시재생 방향과 과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중점추진사업인 원도심 활성화와 '생명력 있는 도시 정읍'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교수와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이광서 아이키 대표가 주제 발표했다.

이날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를 좌장으로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5명의 패널들이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각자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정석 서울시립대교수는 '도시재생에서 지방창생으로'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의 해법을 통해 인구문제 대책과 국토 균형 발전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창생을 위해서는 지역창생법(마을·사람·일자리)제정과 지방창생특구 선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입과 결혼·출산·육아, 고용

등의 다양한 지원 시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로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가 '전환의 시대·문화가 숨쉬는 도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대표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향과 장소 기반의 문화재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과 자원, 사람을 융합시킬 수 있는 공간문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통한 지역주체 형성이 협치(거버넌스)와 합의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한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이 13일 오후 2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고창군, 폭염저감대책 적극 추진

고창군(군수 유기상) 11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온열질환 등 주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장마 이후 한동안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창군에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602개소의 무더위쉼터에 대해 냉방기(에어컨)점검·정비를 완료하고, 연일 이어진 폭염주의보에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재난문자를 발송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폭염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총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야외

그늘막 설치와 공용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대형음료를 비치하고,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표 시 고창군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여 도심은 도를 낮추어 군민들의 불쾌지수를 낮추는 데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며 폭염에 취약한 주변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교육·정화활동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생태환경리더 교육과 정화활동 등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회원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리더 교육은 먼저 마을, 하천, 숲 등의 정화활동과 마을가꾸기 등의 실천 활동을 한 후 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6월 중순이후 8개면 9개마을

(고수면 문수사, 상하면 송림마을, 가시연꽃 군락지(송리마을), 성송면 향산장수마을, 무장면 신월마을, 부안면 안현마을, 삼원면 난호마을, 신림면 청송마을, 성내면 학동마을 등)에서 180여명이 모여 교육과 실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상하면 송림마을을 시작으로 13개면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생태환경리더 교육은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이후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의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자부심과 전체성을 갖추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청정하고 생태환경을 지닌 고창으로 나아가고자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교육과 함께 정화활동 및 생태자원을 보전시키는 활동을 실천이 시작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하 정읍천 물놀이장)이 오는 21일 본격 개장돼 다음달 19일까지 운영된다.

“신나는 물놀이, 정읍천에서 즐겨요”

청소년 물놀이장, 21일 개장 내달 19일까지 운영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하 정읍천 물놀이장)'이 오는 21일 본격 개장돼 다음달 19일까지 운영된다.

정읍천 물놀이장은 정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생태하천인 정읍천을 활용해 조성된 시설이다. 시기동 정동교 하류에 3,860㎡로 조성돼 있고 어린이 풀장 2곳과 물썰매장, 인공폭포,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다.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우천으로 하천 수위가 증가하거나 수질이 탁할 경우 일시 운영이 중지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읍천 물놀이장은 해마다 많은 이들이

즐거 찾고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이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수심이 얕아 유치원과 저학년 등 어린 자녀와 부모들의 발길이 잦다.

시에 따르면 매년 평일 300여명, 휴일 1,000여명이 찾고 있다. 시는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늘막 시설인 풍골텐트와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 남녀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또 개장 기간에 관계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수상안전요원, 물놀이 보조요원, 응급 진료요원 등 매일 18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자기주도학습 진로 캠프 실시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렬)은 16~21일까지 5박 6일간 관내 중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꿈그린내 자기주도학습 진로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사전에 진로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개인별 학습 습관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동기를 부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협동학습과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ET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집단지성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 배틀, 독서 역할극, 스피치, 인공지능 로봇체험, 4차 산업혁명과 기업가정신 등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진학에 성공한 20명의 대학생 멘토들과 캠프활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정읍교육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찬술 음악 캠프'가 27일부터 28일까지 정읍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소성면)에서 1박 2일 동안 실시되며 8월 3일부터 4일까지 '꿈동행 부모-자녀 진로&소통 캠프'가 백양관광호텔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and prices, such as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The bottom right corner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